

4.1무주만세운동 기념행사

무주군, 106주년 맞아 만세운동 재연 ‘나라사랑 무주사랑’ 확인

무주군은 4.1 무주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아 1일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기독교연합회(회장 송서철 적삼교회 목사)가 주관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민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시간을 함께하며 4.1 무주만세운동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106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의 압박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용감히 일어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 가치를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4.1 무주만세운동은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무주지



무주군은 4.1 무주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무주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역에 전해지면서 무주장남(4.1.) 일어났던 것으로, 행사는 ‘자주, 자강, 화합, 평화’ 등의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4.1 무주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4월 1일 기념행사를 해 오고 있다.

4.1 무주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었던 인물은 전일봉 선생(1896~1950)으로 무주를 지남공원에 그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또 당시 전일봉 선생이 ‘삼삼학교’ 간판을 걸고 학생들(무주, 진안, 장수지역)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던 여울교회는 적삼면에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길-사회복지법인 한울안 ‘맞손’

패적하고 안전한 진안고원길 관리 등 협력

진안고원길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울안과 지난 3월 31일 진안남남협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패적하고 안전한 진안고원길 관리 협력, △노인일자리 수요처 등록을 통한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진안고원길 소개 및 동참 홍보 등으로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서명했다.

진안고원길은 전체 14개 구간으로



진안의 14개 읍면을 지나는 총 210km의 환형으로 연결된 길이다. 마을길, 논길, 산길, 숲길, 물길, 고갯길, 옛길, 신작로 등 접점산중 진안 땅을 찾는 도보 여행자들과의 소통의 공간이자

자연과 기억이 풍부한 길이며, 곳곳에 마을 이야기를 간직한 유쾌한 길이자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공간이다.

군은 협약을 계기로 진안고원길을 꾸준히 관리하고 행사를 기획해 온 진안고원길 사무국과 우리 동네 보육도우미, 작은북육탕 지갑이 등 노인여량을 활용한 사업을 다수 진행한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이 협력하여 진안고원길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고령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박차

무주군이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고령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주력한다.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고령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232억여 원을 들여 무풍면 증산리와 지성리 일원에 기반 시설(온실 4.3ha)을 포함한 6.15ha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무주군은 경영실습장을 비



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4동과 육묘장 2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여름딸기를 비롯한 딸라드용 상추 등의 생산지로 활

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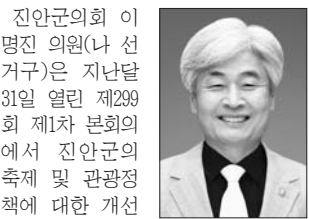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경영실습을 한 청·장년에게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을 연계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에는 무풍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고령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접 지역 4개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및 추진계획의 필요성 등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축제·관광정책 개선해야”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전략 수립 필요성 등 군정질문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나선거구)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의 축제 및 관광정책에 대한 개선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진안군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축제가 가수 공연 위주로 운영되면서, 본래 취지와 방향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구 구성, △축제 분야 전문가 중심의 위원장 배정 등 축제 운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홍삼축제와 ‘김치보쌈축제’의 통합 추진을 제안하며, “축제 장소 확대를 통해 축제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진안을 성미산의 목조 전망대 건립 사업 실효성에 대해 “현 목조전망대 건립 계획은 입지의 적정성, 조망의 매력, 관광 연계 효과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과장된 편익 계산이 담긴 타당성 용역,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중복 투자와 재정 부담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민 의견이 배제된 행정은 예산 낭비와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의 정당성·타당성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망대는 전망 가치, 입지, 접근성 등 기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용담댐의 ‘용 모양’ 지형이 잘 보이는 위치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대중교통 카드 환승할인 시행

진안군은 교통비 부담 완화로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할 운행자료 수집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 환승할인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농어촌버스 간 및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군 자체 운영) 간이다.

군은 환승할인 적용을 위해 지난 3월 하차 단말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시스템 테스트 및 기사 적용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할인 방법은 선 탑승 교통수단에 하차 태그 후 60분 이내 후 탑승 교통수단에 승차 태그 시 환승이 인정되며 기본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진안군은 단일요금 시행 지역으로 관내에서는 요금에 동일해 추가 결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결제 방식이 교통카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결제 방식(현금, 카드)과 상관없이 배부하던 종이 환승권 발급은 3월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전면 폐지한다.

이용 방법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며 65세 이상은 읍·면에서 발급한 통합복지 카드 이용이 가능하고, 64세 이하는 별도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카드 환승할인으로 시행으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시행해 삶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장수군은 지역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5년도 장수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장수군은 전체 고용률 77.7%를 기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1위, 전국 군 단위 3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2025년에는 △미래농업 중심 부자농촌 △희망을 키우는 청년특화 △행복한 일상의 희망복지 △공

존하는 장수의 문화관광이라는 4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장수군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과 함께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 등이 돋보인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진안군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산림 훼손 및 산물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불법벌채,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특히 입산 주요 길목에는 단속 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드론,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교육 추진

장수군은 환경오염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약 50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읍·면 중점 추진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지도자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및 자원 절약 방법,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환경교육 강사는 장수군이 운영하는 ‘그린뉴딜이카데미’ 수료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교육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며 마을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군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